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 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55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5점)
- 2)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0점)
- 3) [라]의 등장인물 ‘아내’(영혜)와 [마]의 ‘병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각각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아내’와 ‘병국’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중략)……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중략)…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중략)……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중략)…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중략)…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 왔던 방식의 가치를 …(중략)…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 찰스 다윈(1809~1882): 영국의 생물학자.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고, 자연 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종이 기원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발표하였음.

* 조예(造詣): 학문이나 예술,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

출처: 방민호 외, 『고등학교 독서』

[나] 인종·언어·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차이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생활 양식, 가치관 등의 차이로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관한 편견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중략)… 이러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또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창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따져보면 11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용광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파리는 매년 이슬람 금식 축제인 ‘라마단’, 인도의 최대 명절인 ‘디왈리’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략)……

토론토는 주민 2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샐러드 볼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다. 토론토의 다문화 정책은 우선 다양한 민족 집단에게 행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종합 시설의 설치, 축제, 교육 등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용광로(melting pot) 정책: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

* 샐러드 볼(salad bowl) 정책: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정책.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자료1)

장자(莊子)는 사람이란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앎(지식)은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물 속의 개구리와 함께 바다에 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공간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며, 매미와 함께 얼음에 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시간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사람은 축축한 곳에서 잠을 자면 피부병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원숭이도 그러한가?”

사람은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의 앎(지식)이 달라지며, 또한 사람과 다른 존재자들의 삶의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지만, 사람은 물속에 있으면 죽는다. 삶의 조건이 다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은 그 능력과 일을 획일화하지 않았다.”라는 장자의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자료2)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요청된다. …(중략)… 원효는 불교의 여러 교설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쟁사상(和靜思想)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가 옳고 그르다는 시비(是非)의 다툼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 교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한마음(一心)이다. 이처럼 원효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갈등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서로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3)

한스 쾨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의 자아비판이다. 즉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정당하다. …(중략)… 다른 종교를 거짓된 것으로 배척하는 독선적 태도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의 진리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성숙한 종교 의식이라 할 수 없다.

출처: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4)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공감(sympathy)이란 우리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 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중략)… 내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어떤 감정의 결과를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로부터 이것의 원인으로 나아가 그 감정에 관한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곧바로 감정 자체로 전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내가 감정의 원인을 지각할 때 나의 마음은 그 결과로 나아가 그 결과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중략)… 즉, 타인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공감을 일으킨다. 흄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으므로 사회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라] (앞부분의 줄거리) 아내(영혜)는 걸보기엔 평범한 성격의 가정주부이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다.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 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 좋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훌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꿴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주의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녜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트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중략)……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와 나에게도 들렸다.

“뭐 하는 것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나이에 정 서방은 어찌란 말이나?”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의 국 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 년간 들어 본 적 없는 사과 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남 일곱을…… 하고 시작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 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내달에 올라갈 테니, 그때 앓혀 놓고 애길 해 보겠네.”

(뒷부분의 줄거리) 처형네에서 장인은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장모는 고기를 달인 한약을 먹이려고 시도한다. 한약 한 모금을 마시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한 그녀는 ‘나’가 잠든 사이 병원 앞 벤치에서 피 묻은 새를 쥔 채 발견된다.

출처: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마] (앞부분의 줄거리)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생활한다.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의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지난여름, 한창 더위가 짙 무렵이었다. 비(B) 공단 성창 비료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욱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 상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놀려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

“당신 자식이람 아직 마빡이 새과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으박질렀다.

“아들은 지, 지금 집에 없소.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 데를 붙어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테니.”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중략)……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샐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

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더니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뽐아야 해!”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차례 이구동성 샷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세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 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엘 나갔다면 우리 비(B) 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 보았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폐수·풍속 측정 등 팔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또 오염 가능 지역을 삼단계로 분류하여 오백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점도 읽으셨겠죠?”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한 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세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 진정서: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

* 야음: 밤의 어둠.

* 출어: 물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갈.

* 검증: 검사하여 증명함.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십시오. (45점)

- 1) [가]를 활용하여 [나]의 주장과 [다]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5점)
- 2) [라]에 나타난 A, B 두 정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의 자료 1~4를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단, A, B 두 정당의 주장에 대응하는 [마]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400자 내외) (20점)

[가]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를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데,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진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갑국과 을국의 사례로 확인해보자. 갑국과 을국의 쌀과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갑국이 쌀 1만 톤을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물고기의 가치, 즉 기회비용이 을국보다 더 작으므로 쌀 생산에는 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 반면, 물고기 생산에 대해서는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

생산량	갑국의 기회비용	을국의 기회비용	비교 우위 국가
쌀 1만 톤	물고기 1만 톤	물고기 2만 톤	갑국
물고기 1만 톤	쌀 1만 톤	쌀 0.5만 톤	을국

(표 1) 쌀과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과 을국이 1년 동안 자급자족을 위해 6개월씩 쌀과 물고기를 생산하여 갑국은 쌀 25만 톤, 물고기 25만 톤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을국은 쌀 15만 톤, 물고기 10만 톤을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자급자족하던 두 국가가 서로 비교 우위 품목을 특화하여 무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국가는 쌀과 물고기를 2:3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정하였으며, 비교 우위에 기초해 특화하여 교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적으로 비교 우위에 기초해 특화와 교환을 하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구분	무역 이전 (생산=소비)		특화(생산)		무역 이후(소비)	
	쌀	물고기	쌀	물고기	쌀	물고기
갑국	25	25	50	0	30	30
을국	15	10	0	40	20	10
전체	40	35	50	40	50	40

(표 2)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하여 무역한 결과 (단위: 만 톤)

출처: 박형준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나]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고 백성은 가난하여 농사를 짓는 데 재사(才士)를 쓰고 상공을 통하여 나라 안의 이익을 용통하게 하더라도 부족해질 것이다.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유통한 후에 재화와 재물이 증식하고, 백 가지 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략).....

단지 중국의 배만 통상하고, 해외의 모든 나라와 통상하지 않는 것은 역시 일시적인 술책이고, 정론은 아니다. 국가의 힘이 조금 강해지고 백성의 생업이 안정되면 차례로 이를 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출제진 재구성)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타고나, 밭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눈은 중국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국경 안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 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예(禮)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해졌다.

* 이용후생(利用厚生):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출처: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컨테이너는 볼품없이 생긴, 그 자체로는 매력을 찾기 어려운 철제 상자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 컨테이너가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컨테이너는 세계 곳곳으로 쉽고 간편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항구를 재편하였다.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운송비, 보관비 등 물류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은 급증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화에 기여하였고, 소비자인 우리가 수많은 상품을 더욱 값싸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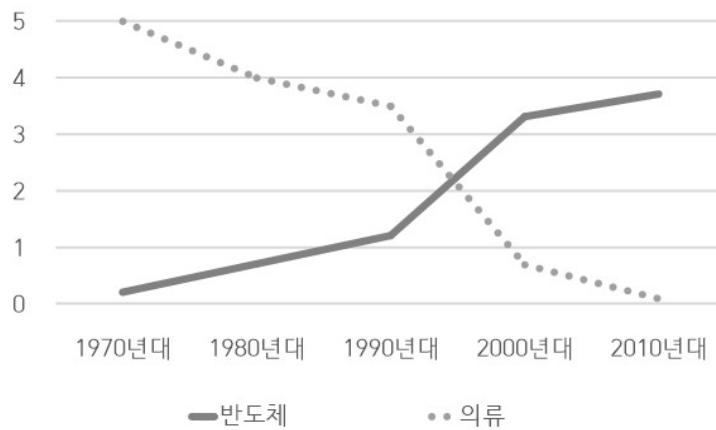
[다] 1960~1970년대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주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의류, 신발, 합판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수출을 이끌었다.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변화>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위	의류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2위	합판	철강판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3위	가발	신발	신발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4위	철광석	선박	영상기기	선박	무선통신기기
5위	전자제품	음향기기	선박	석유제품	석유제품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우리나라 반도체,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 지수* 변화>



* 비교 우위 지수: 세계 전체 수출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함.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라] △△ 나라에서는 어떤 무역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정당 들은 서로 다른 무역 정책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하고 하였다. A 정당은 시장 개방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B 정당은 시장 개방이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피해를 강조하였다.



(그림 1) A 정당 선거 포스터



(그림 2) B 정당 선거 포스터

(그림 1)은 A 정당의 선거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에서 두 가게의 풍경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왼쪽의 '자유 무역 가게'는 물건을 사려는 고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오른쪽의 '보호 무역 가게'는 손님이 끊긴 채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세무 공무원을 맞이하는 주인의 난처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A 정당은 각국이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유 무역을 실현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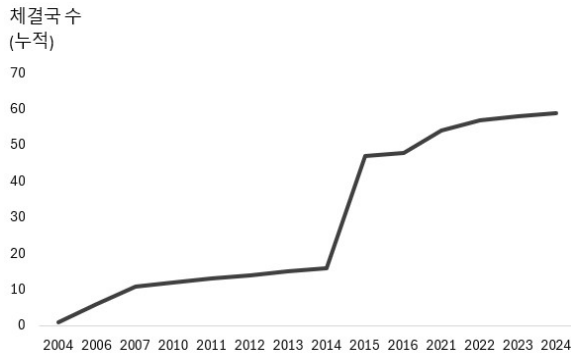
반면, (그림 2)는 B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외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 나라 노동자의 소외된 모습을 담고 있다. B 정당은 자유 무역이 경쟁력이 낮은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면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B 정당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관세나 무역기술장벽(TBT)* 등 무역을 직접 통제하고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그리고 이를 잘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절차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임.

출처: 『중앙선데이』, 2015. 12. 13. 등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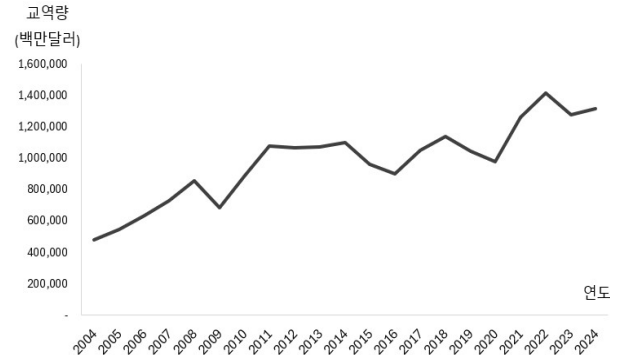
[마] (자료1)

<대한민국 연도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누적)>



출처: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대한민국 연도별 교역량>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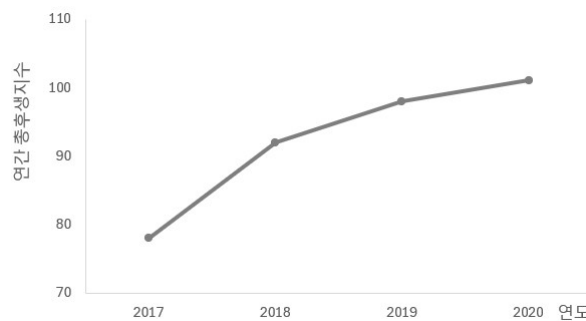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경제 통합 협정을 말한다.

출처: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료2)

관세의 하락이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총후생지수는 이처럼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이 포함된 개념이다.

<FTA 소비자 총후생지수 측정>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1. 6. 30.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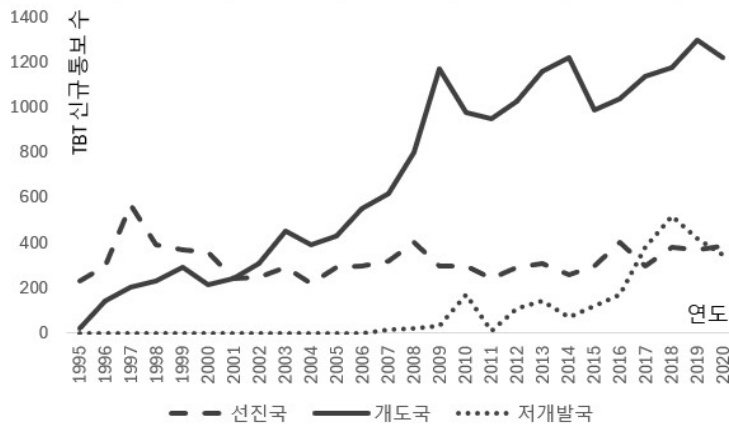
(자료3)

개도국 등의 전체 무역기술장벽(TBT)의 신규 통보 건수는 2001년 이후 선진국을 넘어섰고, 저개발국은 2017년 이후 선진국을 넘어섰다.

.....(중략).....

개도국 등은 자국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 생산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선진국의 표준이나 기술 규제를 도입해 활용한다.

<연도별 TBT 신규 통보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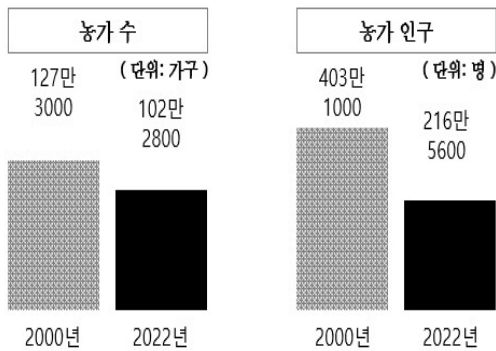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 이슈 보고서-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출제진 재구성)

(자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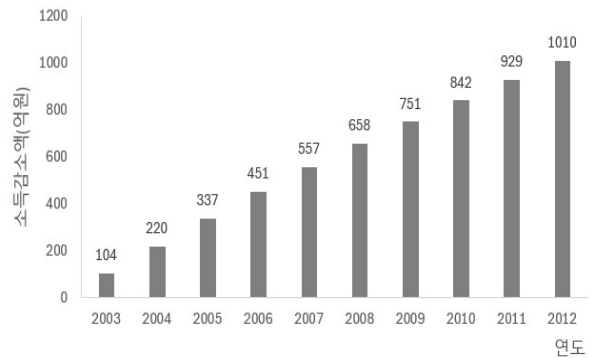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교역국과 수출입 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변화하였다.

출처: 『경향신문』, 2024. 6. 17.

<농가 규모 현황>



<과실 생산농가 소득감소액>



출처: 『경향신문』, 2024. 6. 17. (출제진 재구성)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 (출제진 재구성)

